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종교를 저희가 다루는

크게 두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로

개별종교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샤머니즘, 해원과 신명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샤머니즘 혹은 무속, 무교라고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만

샤머니즘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샤머니즘은 '샤먼'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무당  
혹은 무속인, 무교인이라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만

샤먼을 중심으로 한 종교성 혹은 종교,  
제도화된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은 유교나 불교나  
혹은 기독교, 이슬람처럼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형태의

교율이라든지 조직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종교의  
근원적인 형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종교에 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혹은 보이지 않는 차원과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샤먼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차원과 연결하는

혹은 매개하는 매개자로서의 기능들을  
아주 강력하게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샤먼은 다른 여타

세계적으로 제도화된 종교만큼

체계적인 교리라든지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저희가 종교 이해를 위해서는

한 번쯤 다뤄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샤머니즘을 포함해서 2부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전통 중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미래 사회의 전통적인 종교가

혹은 영성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변하고 변화될지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샤머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샤머니즘, 그러니까 영어로는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말로 보통 무속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무속 혹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샤먼 혹은 무당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종교 활동, 혹은 종교입니다.

샤먼은 누구냐? 샤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무'(巫)라는 글자가

한자어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습시다만

하늘과 땅을 인간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떨 때 있느냐 하면  
샤먼이 포제션(possession),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아닌

무당의 소위 점신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있는 사람들로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교가  
보이지 않는 차원과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샤먼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형태의  
하늘과 땅 혹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샤먼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고 하면

샤머니즘을 해원과 신명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을 풀어준다는 뜻이고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샤먼이 포제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샤먼이 소위 신기  
혹은 신에 접속하게 되는

신에 의해서 포제션, 접신된 상태에  
표출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저희가 신명 혹은 신기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무속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형태의 종교는 이것처럼

신명이 된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건 자체가

해원, 다시 말해서 지상 세계 혹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혹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먼들 혹은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굿'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굿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합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하거나  
혹은 귀신에 들렸든지

혹은 초자연적인 이유로 인생의  
여러 가지 흉한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굿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즘은 세속화된 사회에  
샤머니즘이 예전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 못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굿을 하는 장소가 굿당이라고 하는  
산속 깊은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굿이라는 의례를 하게 되는데

원래 굿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샤먼이 리드하는 상태에서  
집단적 변형의식상태로 가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샤머니즘적 의례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유교, 불교와 같은

특히 그리고 해방, 근대화된 이후에는  
기독교 같은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샤머니즘이 음지로  
혹은 저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숨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종교인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혹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때도

한국인들의 본성에는 혹은 한국 사회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혹은  
숨은 기능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한말에 왔던 한국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던

헐버트 같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와서 지켜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교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생활 방식은 유교적으로 하고  
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더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 얘기는 결국 샤머니즘  
혹은 무당이라고 하는 무교의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그때  
근대 이후에도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샤머니즘이 여러 종교 전통들을  
다루기 이전에

종교의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된 형태로서 존재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샤머니즘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샤먼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행하는

우리로 치면 종교인이겠죠.  
이분들이 가지는 소위

보이지 않는 차원과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의식이 변형된 상태에서  
이것을 연결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종교의 근본적인 속성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들과  
보이는 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의식변형상태에서 서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곳 보면  
놀라운 에피소드라고 얘기되는 게

돌아간 사람들, 특히나 원한이 됐든

제대로 된 죽음을 못 맞이한 상태에서  
돌아갔던 분들의 영혼을 초혼,

불러내서 샤먼이 포제션된 상태에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산 자들에게 들려주는 이 곳

혹은 의례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고정불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거나 변모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그 신, 절대자인 신이  
나를 완전하게 포제션하게 되면

소위 저희가 심층 종교와  
신비주의에서 말씀드렸던

신비적 합일체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샤머니즘적 용어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물론 샤머니즘은 철저하게  
궁극적 존재인 신과 결합한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혼  
혹은 혼백과 교류함으로써

혹은 저희가 '만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자신의 몸을  
차지 할 수 있게 허락함으로써

지상 세계에서 풀지 못하는  
혹은 지상 세계에서 더 필요한

초자연적인 측면의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의미에서

샤머니즘은 신비주의와  
분명히 차이를 보이죠.

그런데 샤머니즘이 이런 방식으로

근원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종교성을 표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현대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의 불교라든지 유교와 같은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도

샤머니즘은 항상 비판 혹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샤머니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제도화된 종교에 비해서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 교리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 교리 해석에 입각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어떤 윤리적 규범 체계라는 측면에

특별히 종교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샤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샤머니즘은 개인들이 삶에서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과제들,

일상적인 기복적인 측면들을 해결하고  
해소해 주는 측면이 강해서

고도의 윤리적인 체계라든지  
사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탓에

소위 기복적 신앙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기독교 같은 데는

종교인들을 배출하는 체계적인,  
제도적인 신학대학이라든지

불교 같은 승가대학 같은 곳을 갖춰서

종교인들을 체계적으로  
배출한다고 하면

무속은 아직도 저희가 일간지라든지  
여성잡지 같은 것 보면

그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무병을 앓고 신내림굿을 받아서  
소위 무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위 흑세무민한다

그런 비판을 굉장히 받기 쉬운  
종교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샤먼을  
여러 종교를 다루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해 보자고 하면

샤머니즘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종교성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전 세계의 문화에

제도화된 종교가 설령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샤머니즘적 경향 혹은 샤먼적 기능을  
하는 샤먼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먼이 그렇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의 확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접속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종교성을 표출하지만 동시에

그 수준을 확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혹세무민을 비롯해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화된 고등 종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샤먼으로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하늘과 인간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유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교를 저희가 다루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다룬  
샤머니즘과 대단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차별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